입문수기

첫번째회 신천신지(新天新地) 찾아가는 길

“정도령이 죽지 않는 세상을 건설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6.25 전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나는 1944년 6월 3일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시금리에서 태어났다. 내 나이 여섯에 6.25 전쟁이 터져서 북한 폭격기가 우리집에 폭탄을 떨어뜨려 박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전쟁이 끝난 후 집에서 두 시간 걸리는 제일국민학교를 걸어서 다니다가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시게 되자 새엄마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돈을 벌러 서울로 올라가셨고, 우리집은 생활이 어려워 이천에 있는 작은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나는 국민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다. 작은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 두 분 즉 당숙 두 분이 있었는데 전쟁 통에 자식들을 다 잃으시고 두 분만 외롭게 살고 계셨다.

엄마와 4 남매를 포함하여 우리집 다섯 식구가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 식구 중에 내가 장남이다 보니 틈만 나면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 땔감으로 썼다. 매일 나무를 해 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을 정도였다.

그럭저럭 삼사 년이 지나 아버지가 서울 제기동에 거처를 마련하여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서울에 와서 집안이 어려워서 안 해본 것이 없었다.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경제는 극도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틈만 나면 깡통을 들고 화물열차가 흘리고 간 석탄을 주으러 철길을 따라 지금의 성북역까지 갔다 오면 많이 주을 수 있었고 그걸로 불을 때서 밥도 하고 방도 땠다. 당시 성동역의 위치가 지금에 경동 한약방 자리이다. 우리집은 제기동 철길 옆 판잣집이었고, 거기서 약 3년간 살았다.

청소년 시절 누나를 따라 전도관에 가 보다

청소년이 되면서 이곳저곳 공장생활을 하였고, 아버지 리어카를 따라 배추장사를 나가기도 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내 위의 누나가 저녁 때에 “야, 우리 놀러가자”고 하여 따라 가보니까 전농동 전도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마니를 깔고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예배를 보았는데 나도 따라서 했다. 두어 번 정도 따라가서 예배를 보았다. 어린 나이에 누나가 가자고 해서 그냥 나가 본 것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누나는 신앙촌에 들어갔다. 나중에 누나는 전도관에서 결혼을 하라고 할 때 차옥천 장로와 결혼을 하였다.

군대생활 중 월남전 맹호부대에 지원하다

나는 15세에 인쇄공장에 취직해 인쇄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인쇄소를 6년 정도 다닐 무렵 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논산 훈련소 25연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때 나는 3소대였는데 5소대 선임하사가 날 매우 좋게 보았다. 당시 군생활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서 병사끼리 음란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선임하사는 내가 귀엽고 자기 친동생처럼 생각되어서 그런지 자고 있는 날 업어다가 자기 옆에 늘 재웠다. 그러다보니 부대에서는 취침 후 불침번을 1시간씩 서는데 내가 제 자리에서 잠을 자지 않으니 보초를 못 서게 되었고, 동료 병사들은 아침만 되면 내가 다른 데서 자고 오는 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했지만 훈련병들의 대장인 선임하사가 나를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선임하사는 훈련 나가면 밥도 많이 챙겨주고 나를 끔찍이 아껴줬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사창리 27사단으로 배치 받았다. 그곳에서 자대훈련을 받은 후 소대장 전령으로 임명되어 열심히 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연대장 전령으로 발령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월남전 파병 병력을 모집한다기에 맹호부대에 지원하게 되었고, 파병하기 전에 훈련을 하고 여의도에서 박정희대통령 환송식을 마치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6일간 항해 끝에 월남에 상륙하게 되었다.

신불선 장로가 제단 표지석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월남에 가서도 무슨 팔자인지 또 소대장 전령으로 발령이 되었다. 그 소대장은 국내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다. 나는 소대장 전령이다 보니 소대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게 되었다. 소대장은 작전을 수행할 때 잡은 포로들 중 여자를 데려와서 휴식시간에 재미를 보곤 했다. 그때 소대장은 나에게 망을 보라고 해서 망을 봤지만 내 마음은 좋지 않았다. 그 소대장은 주님 말씀대로 얼마 안 가서 말라리아에 걸리더니 죽어버렸다.

그 후 중대장 전령으로 발령되어 6개월간 생활하다가 병장 진급과 동시에 분대장으로 보직 변경되어 있다가 귀국하였다.

월남에서 귀국한 후 다시 인쇄소의 일을 하다

월남에서 18개월 만에 무사히 귀국해 제대하여 다시 인쇄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이곳저곳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1978년경 우진정판 인쇄소에 공장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진정판은 당시 경영이 엉망진창이 되어 직원들 월급도 몇 개월째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 일을 하겠다고 나는 들어갔던 것이다. 우진정판은 일은 많이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쇄기계를 수리하여 잘 돌게 만든 다음, “사장님은 일감을 많이 가져오세요. 가져온 일은 공장장이 책임지고 다 해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사장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뒤 많은 일감을 가져왔다.

그렇게 5개월 열심히 일하니까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게 되었고, 나도 밀린 월급 3개월분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이 잘 되어 사장은 월세에서 아파트로 살림을 늘려서 가게 되었다. 회사가 급성장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나는 본래 돈을 몰라서 내가 한 만큼의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를 바보라고 했을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 전단지를 인쇄하게 되어 하루에 5만 장씩 매일 찍다보니까 24시간 계속 일을 해서 인쇄하여 각 대리점에 발송하였다. 우리 사장은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고, 나는 오직 아무런 욕심없이 일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이상향(理想鄕)의 세계를 꿈꿨다. 그 꿈은 죽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너무도 간절하여 일손이 잘 잡히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깊이 빠지니 생활이 혼란스러워 집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당신 절에 한번 가자고 하기에 관악산 어떤 절에 가게 되었다. 막상 절에 가보니 별 느낌이 없어서 산과 절만 구경하고 내려왔다. 그러다가 사장에게 요구한 사소한 문제가 거절되자 인쇄소를 그만 두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상향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절하여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이상향을 꿈꾸던 중 승리제단에 오다

그래서 두어 달 동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매부(차옥천 장로)가 승리제단으로 와 달라는 것이었다. 책을 출판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쇄일이라 흔쾌히 승낙하고 역곡에 있는 승리제단을 방문했다. 승리제단에 도착해 3층 식당 옆 사무실에 계신 모 권사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권사님은 나의 누님도 잘 알고 있었다. 왠지 낯설지 않게 여겨졌다. 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원고를 받아 교정과 수정을 하여 약 삼사일이 흘렀다. 당시 책을 만드는 일은 지금과 전혀 달라서 청타로 친 원고를 직접 들고 와서 교정을 본 후 다시 수정하여 가져와야 하는 등 왕래가 빈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쳐지지 않던 박수가 나도 모르게 쳐지기 시작하다

그 때 나보다 4일 먼저 나오신 분이 나를 전도하시는데 학식이 아주 많았다. 성경 불경 격암유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하시는 중에 나는 생전에 접해 보지 못한 말씀이라 머리만 끄덕이면서 들었다. 그분이 고서로 유명한 이석만 장로님이었다. 이석만 장로는 역곡에 조희성님이 안 나왔으면 자기가 정도령 하려고 했다고 솔직히 말씀하는 것이었다. 정도령에 관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하니 이 사람들이 나를 꼬시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도 참으면서 듣고 있는 중에 “정도령이 죽지 않는 세상을 건설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다른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 말만은 마음에 끌리어서 그간에 머리가 복잡했던 생각들이 확 정리가 되면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랐다. 앞으로 제단에 9시까지 나와서 예배에 참석토록 권유하기에 그러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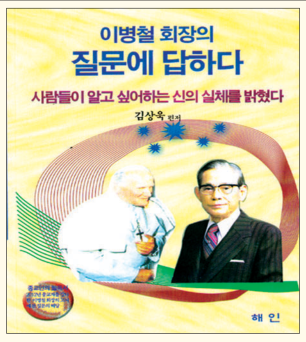
이튿날 제단에 와서 지하 예배실로 인도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말씀만 들을 뿐 찬송도 안 나오고, 박수도 쳐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구경꾼처럼 앉아만 있었다. 인쇄일로 제단에 방문한 지 나흘째 되는 날(1983. 12.10)부터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조희성 님께서는 먼저 나온 식구들의 꿈 해석을 하신 후 ‘단지파의 노래’를 찬송 인도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박수가 저절로 쳐지는 것이었다.*

신불선 장로/ 본부제단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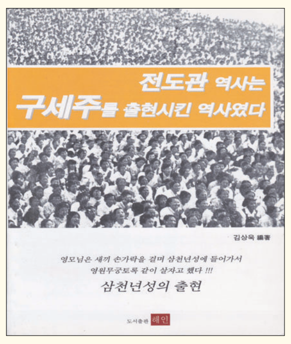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불사 영생학(不死 永生學)관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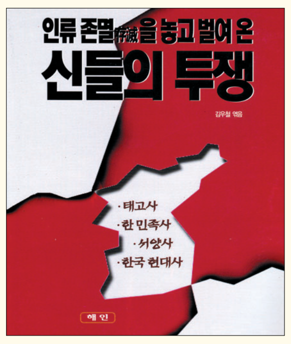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못다 해결한 인간 존재의 본질적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조명하였다.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묵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낸 답변을 읽을 수 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았을 것 같은 그분이 죽기 전에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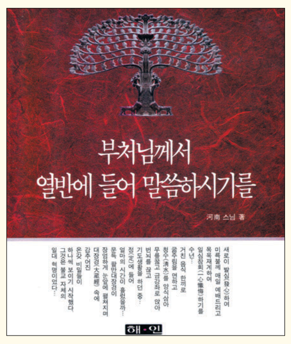
이 책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으로 회복된 첫 존재인 조희성 선생이 설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다는 영생학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론이며,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생만을 위한 소아(小我)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생을 지향하는 대승적(大乘的)인 이론이다. 성주괴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우주를 항상한 빛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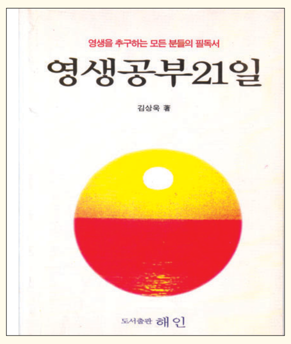
전도관은 종교 역사에서 시비가 많다. 더우기 전도관을 이끈 박태선 장로가 1980년 이후에는 자신이 공들여 키운 전고관을 해산하여 천부교라고 바꾸고, 산하 기업들을 전부 부도내고 따르는 신자들을 거의 반강제로 내보내는 등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이러한 일련의 납득하기 어려운 박태선 장로의 행적과 전도관의 역사를 박 장로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데에 맞춰 해설하였다. 즉 박태선 장로는 구세주를 배출하라는 하늘의 뜻을 받고 완벽하게 실현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신과 인간을 해롭게 하려는 신이 투쟁해 온 것이다.
인류 문명의 마지막 진통, 그것이 한국 현대사인 것이다. 한민족에게는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신이 내재하셔서 지난 수천년부터 투쟁해 오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홍익인간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해 왔고 또 승리하신 한민족의 수호신의 하해와 같은 역정을 감히 하나의 작은 그릇에 담아놓은 것과 같다. 독자 제현께서 이 한 그릇의 적은 물로도 능히 대해를 맛보시기 바란다.



불법의 진의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 새롭게 밝혀 놓은 책으로 진실한 삼보(三寶)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의불(歸依佛), 귀의법(歸依法), 귀의승(歸依僧)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하신 진실한 삼보는 미묘하게 감춰져 있다고 한다.
또, 북방불교는 대승불교요, 남방불교는 소승불교라는 개념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진실한 대승의 의미는 모든 중생이 다 한가지 도(道)를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즉 유불선(儒佛仙)의 합일(合一)이 진정한 대승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부처님)이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21일이면 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승리제단에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위하여 21일간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책은 승리제단 신규 입교자가 21일간 승리제단 교리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이기신 구세주’의 은혜를 받게 된다.

도서출판 해인